

통일의 기초 다지는 북한관계 연구서

자료공개 이후 출간 활기... 학문적 공백 메우고 동질성 확보에 기여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의 파행을 낳은 근원을 분단서 찾고 그 분단의 역사를 적극적 의미로 뒤집어 통일로 가는 역정의 세월로 씬한 대학가의 한 표현을 빌자면 '통일염원 46년'이 되는 지난해는 우리 민족의 지난한 통일여정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해였다. 유엔 동시가입,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채택, 설날 그믐날에 가서명된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굵적굵직한 성과들은 그 이면에 숨은 양측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의도, 그리고 무수하게 남아 있는 실질적인 과제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제시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남북 상호간의 관계 규정은 더이상 북한을 우리의 적대국가가 아닌 민족내부의 한 성원으로 못박고 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렇듯 새롭게 정립된 남북관계의 위상을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하나의 틀로 본다면, 보다 앞선 시기에 진행되어 왔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그 틀을 세우는 데 적지 않은 몫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 틀을 채워나가기 위해 지속되어야 할 기초작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서들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이다.

북한자료 공개 이후 본격 출간

이러한 '북한학'이라는 학문적 분류체계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연구서들의 출간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 후반. 거세게 일었던 사회민주화와 통일의 열기로 전에 없이 고조된 북한에의 관심과 대학가와 재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전개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정한 영향력을 제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질서의 개편과 우리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른 대공산권정책의 변화, 그리고 북한자료에 대한 공개 등으로 인한 연구환경의 변화가 잠재해 있던 연구의욕과 필요성을 부추긴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80년대 후반 이후로 최근까지 출간되어 서점에 나와 있는 이들 연구서는 대략 1백여종에 이른다. 이들 중 최근에 출

간된 것으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일관된 기획의도하에 연속적으로 출간된 몇몇 시리즈들이다. '북한의 인식'(전12권, 을유문화사)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전12권, 고려원) '북한 문화예술 40년'(전6권, 신원문화사) 등이 그것. 「북한개론」(최명 편)을 첫 권으로 낸 뒤 최근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김철범 편)으로 완간을 한 '북한의 인식' 시리즈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언론, 언어, 문학, 예술, 교육, 통일정책 등 전 분야를 총망라, 북한인식의 객관적 길잡이 역할을 하게끔 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기획한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는 민속예술, 언어, 고전문학, 현대문학, 미술, 공연예술, 문화유산과 정보 등 북한 문화예술의 현수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문화예술 40년'은 북한의 영화, 대중가요를 포함한 음악, 생활문화 등 대중문화의 현상과 실체를 북한 당국의 정책방향과 함께 고찰하고 있는 것이 특색.

연구분야 및 주제 다양화

이러한 시리즈와는 달리 개인 혹은 공동연구의 성과를 모아 단행본으로 펴낸 책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 책의 목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역사와 어학을 포함한 국문학쪽인 듯하다.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정용호 외, 일송정) 「오늘의 북한민족」(김영규, 조선일보사) 「북한의 고대사연구」(역사학회 편, 일조각) 등은 근년에 나온 역사 분야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민족해방운동사, 근·현대사 시기 구분문제,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성격 등 남북한의 역사인식 이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제와 항목을 선정, 양측의 인식과 서술태도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남북한……」은 15명의 소장 역사연구학자들이 공동저자로 참여, 눈길을 끈다. 고대사의 경우 그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절실한 분야. 「북한 고대사연구」는 북한학계의 논의들을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남한 학자들의 비판과 분석을 동시에 수록한 책이다.

북한의 언어이론과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국어사에서 문체론까지 언어학 전반에 관한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놓은 「남북한 언어비교」(전수대·최호철, 녹진)와 제32회 국어국문학회연구발표대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국어국문학회, 지식산업사), 「북한의 국어연구」(김



민수, 일조각) 등은 어학분야의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이밖에 북한의 시가창작, 시가문학 연구의 현황을 증점적으로 소개한 「북한의 시가문학」(김대행, 문학과 비평사)과 1945년에서 1989년까지 남북한 문학사를 정리한 「남북한 문학사연표」(한길사), 「북한의 문예정책」(홍기삼, 평민사) 등은 근년에 출간된 국문학 분야의 연구서이다.

북한 관계 연구서는 이밖에 북한사회의 전반적 현황을 개괄한 것에서부터 법률, 행정, 정치, 경제, 교육,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출간되어 있다. 「북한학 개론」(김갑철 외, 문우사) 「북한법 40년과 그 동향」(고려대법학연구소, 고대출판부) 「북한행정론」(박완신, 회성) 「북한경제의 전개과정」(박문정 외,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주체교육사상」(김형찬, 한백사) 「소련공산당의 해체와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최성, 한울) 「북한의 여성정책」(유미량, 한울) 「北韓人民軍隊史」(장준의, 서문당) 「북한의 절과 불교」(정태혁, 민족사) 「북한 新풍물기」(고태우, 우아당) 등은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담은 가장 최근의 저작들로 꼽을 수 있다.

통일지향성 표방한 최근의 연구서들

최근에 나온 이러한 북한관계연구서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것은 지난 1962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출발한 우리 학계의 북한연구 성과는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당국의 정책전략적 목적에 봉사하는 '대외비'용 연구논문이나 보고서가 주종을 이루어 일반인의 손에 닿기는 힘들었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공개용 저서

형태로 출간되었다 하더라도 시대적 제약으로 남아 있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배제하지는 못했다는 학계의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즉 최근에 나온 북한관계 연구서들은 달라진 조건과 연구환경을 최대한 활용,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펴하고 있고 그 목적 또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동질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통일지향성을 공통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것들보다 진일보했다는 말이다. 이와 아울러 종래에는 정치, 군사 등에 밀집되었던 연구영역이 보다 확산되는 한편 그 주제도 다양화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층위의 학자들이 이분야 연구에 참여, 북한연구 학자층에 일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최근의 북한연구에 있어 두드러진 현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연구서 출간의 활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학계 및 출판계의 전망이다. 월간 「북한」지의 편집장 고태우씨는 "북한측의 자료공개 제한 등 아직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문학, 예술, 역사 등 비교적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직접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분야에서의 학문연구와 교류는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학문적 성과들이 일반인들과 공유되지 못한 채 책속에 사장되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은 구호가 아닌 인식과 실천에 있음을 강조한다.

—박남정 기자